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5. 2. 19.(수)

자료문의 : 공판1과

전화번호 : 02-3480-2360

주책임자 : 공판1과장

### 제 목

## 2025년 1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5년 1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

① 마스크 제조 기계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받던 피고인 A가 법원에 제출한 B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 확인 과정에서 B 회사 명의 문서위조 뿐만 아니라 C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 위조 및 C 회사에 대한 동종 사기 범행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도주한 A를 검거 후 구속 기소한 사례 [충주지청]

② D의 특수폭행을 유일하게 목격한 E가 'D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법정에서 즉시 E와 피해자의 대질 증인신문을 통해 E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고 D에 대한 실형선고를 이끌어내었으며, E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D와의 녹음파일 등 확보하여 D, E로부터 범행 자백받아 D를 위증교사, E를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원주지청]

③ 성매매업소의 실장인 F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여종업원 G, H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 후 G, H로부터 위증 자백 및 피교사 진술 이끌어내고, F-G-H간 통화내역 분석,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F가 G와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어, F를 위증교사로, G·H를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남양주지청]

④ I가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 J에게 상해를 가하고 J가 경찰에 신고하자 식칼을 들고 위협한 보복협박 등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J가 '내가 식칼을 들었다'고 허위증언하여, 교도소 접견녹취록, I가 J에게 보낸 편지 등을 분석하여 I가 J에게 출소 후 같이 살자고 회유하며 지속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I를 위증교사로, J를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

⑤ K의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중 L과 M이 K가 업주가 아니라고 위증한 사건에서,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을 통해 K가 L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 반대신문사향 질문지 및 K가 업주인 보강 증거를 확보하여 K를 위증방조로, L·M을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성남지청]

⑥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린 적 없고, 모자 버클에 찍혀서 상처가 났다'고 허위증언하여, 초동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격비산혈흔 사진 분석 등을 통해 N이 피고인과 합의 후 허위증언 하였음을 밝혀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순천지청]

[첨부: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총주지청 형사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b> 사기죄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2부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례</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 A가 피해 회사 10곳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마스크 제조 기계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3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받던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B 회사와 C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 2부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건</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회사 대표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b>사문서위조 혐의를 포착하고,</b></li> <li>○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 A가 C 회사 명의로도 같은 내용과 형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여,</li> <li>○ 관련자 조사, 계좌거래내역 확보·분석 등으로 B, C 회사에 대한 사실확인서 위조·행사 및 C 회사에 대한 동종 사기 범행을 밝혀내 구속영장 청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검거 후 구속 기소한 사례</li> </ul>
	김상문 (37기)	
	변형기 (변10)	
2	원주지청 형사1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b> 특수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사례</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D의 특수폭행 사건에서, D가 목격자 E에게 ‘소주병이 우연히 테이블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여 E가 위증한 사례</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에서 E의 증언은 소주병의 파편이 비산된 현장 사진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즉시 피해자와 대질 증인신문을 통해 E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D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고</li> <li>○ E에 대한 위증수사에 착수하여 E로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받고, E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D, E의 통화 녹음파일 확보 후 D로부터 위증교사 사실 역시 자백받아,</li> <li>○ D와 E를 각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기소하여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2개월간 위증사범 7명 인지·기소</p>
	류주태 (37기)	
	조승우 (변7) 現 형사2부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남양주지청 형사1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성매매업소 실장이 여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업소의 실장인 F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여종업원 G, H가 ‘해당 업소는 일반적인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업소이고,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정혁준 (35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증언과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는 G와 H의 경찰 진술을 면밀히 확인하여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li> <li>○ G와 H를 조사하여 위증 자백 및 피교사 진술 이끌어낸 후, 통신영장 3회 발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F가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하거나 대면하여 G·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확인하여,</li> </ul>
	홍기영 (변10) 現 형사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를 위증교사로, G와 H를 위증으로 기소하는 등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2개월간 위증사범 5명 인지·기소</p>
4	대구지검 공판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동거녀를 회유하여 위증하게 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가 동거녀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J가 신고하자 식칼을 들고 위협한 보복협박 등 사건 재판에서, J가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식칼을 들었다”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곽계령 (37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의 교도소 접견녹취록을 분석하여 I와 J가 서로 말을 맞춘 정확을 확인하고 이를 추가증거로 제출하여 I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고,</li> <li>○ J로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 받고 I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을 임의제출 받아, I가 지적장애가 있는 J에게 출소하면 같이 살자고 지속적으로 회유하며 위증을 교사한 사실 확인 후 I로부터 위증교사 자백을 이끌어 낸 뒤</li> </ul>
	오승식 (변6) 現 강력범죄수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와 J를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기소하여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사범 4명 인지·기소, 1년간 국민참여재판 16건 수행·9건 실형 선고</p>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성남지청 공판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변호인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위증을 방조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로 기소된 K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종업원 L, M이 K가 업주가 아니라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박인우 (37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중 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L이 K가 업주임을 전제로 제기한 진정서가 확인됨에도 L은 K가 업주가 아니라고 허위증언하여,</li> <li>○ K, L에 대한 <b>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b>을 통해 K가 L에게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해야하는지 알려주는 <b>통화녹음파일과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질문지</b> 등을 확보하고,</li> <li>○ K와 이혼한 M도 K가 업주가 아니라고 위증한 사실까지 포착하여 <b>K를 위증방조, L·M을 위증으로 기소</b>하는 등 실제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사범 4명 인지·기소</p>
	송정현 (변12) 現 형사3부	
6	순천지청 형사1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과 합의 후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이 술병으로 친구 N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재판에서 N이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린 적 없고, 모자 버클에 긁혀서 상처가 났다’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신승희 (35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부인하는 특수상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N의 증언과 피고인 주장 사이의 모순점 및 N이 합의 후 위증한 정황을 포착하고,</li> <li>○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최초 112신고 내용, 충격비산혈흔 사진, 상처 모양 등 증거를 면밀히 비교분석 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주장을 적극 탄핵하여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내고,</li> <li>○ N 조사 등을 통해 N의 위증 혐의를 명확히 하여 기소함으로써, 실제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사범 4명 인지·기소</p>
	김서정 (변12)	